

'LG 구겐하임 어워드' 수상자 슈리칭

70년 인생, 실험의 연속 예술·기술 경계를 허물다

문소영 기자

지난 2일,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는 두 번째 'LG 구겐하임 어워드' 시상식이 열렸다. 수상자는 대만계 미국 여성 작가 슈리칭(Shu Lea Cheang). 짧게 깎은 백발과 산뜻한 테일러드 재킷이 잘 어울리는 그는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이와 성별과 국적을 잘 가늠할 수 없는 시크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추구해 온 작품세계와도 일맥상통한다.

슈리칭은 인터넷이 태동하던 1990년대에 이미 넷 아트(Net Art), 즉 인터넷 공간을 활용한 디지털 예술을 실험한 선구자다. 그 후에도 VR, 소프트 웨어 디자인, 코딩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작품에 적극 활용해 왔다. 또한 기술적 유희에 그치지 않고 이를 활용하여 젠더와 인종 등의 정체성과 관련한 사회정치 문제를 작품으로 심각하게 다루어 왔다.

그러나 슈리칭은 기업 LG와 구겐하임 미술관의 글로벌 파트너십의 일환인 'LG 구겐하임 어워드'의 취지에 무척 잘 맞는 작가인 셈이다. 양 기관은 파트너십의 취지가 "예술과 기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시대와 호흡하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예술가들을 위한" 것이며, "사회상을 반영하는 중요한 가치를 함께 연구함으로써 예술을 구현하는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상에는 트로피와 함께 10만 달러의 상금이 수여된다.

내달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작품 소개 예정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현대미술 수석 큐레이터 주은지, 지난해 'LG 구겐하임 어워드' 초대 수상자인 인공지능 아티스트 스테파니 딘킨스 등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슈리칭의 작품은 (...)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예술적 실험을 펼치며 디지털 시대 스토리텔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왔다. 특히, 인터넷 기술 초창기인 1990년대에 '넷 아트' 분야에서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긴 선구자로 새로운 도전을 향한 그녀의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에 경의를 표한다."

1954년 대만에서 태어나 국립대만대에서 역사학을 공부하고 미국 뉴욕대에서 영화학 석사를 취득한 슈리칭은 일찍부터 정보화 시대에 주변부로 밀리는 사람들 및 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문제를 뉴미디어를 통해 제기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 그 초기 활동으로 1982년부터 뉴욕의 대안 미디어 단체인 '페이퍼 타이거 텔레비전'의 멤버로 활동하며 미디어의 인종차별 문제를 다루는 공개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넷아트' 이끈 대만계 미국 여성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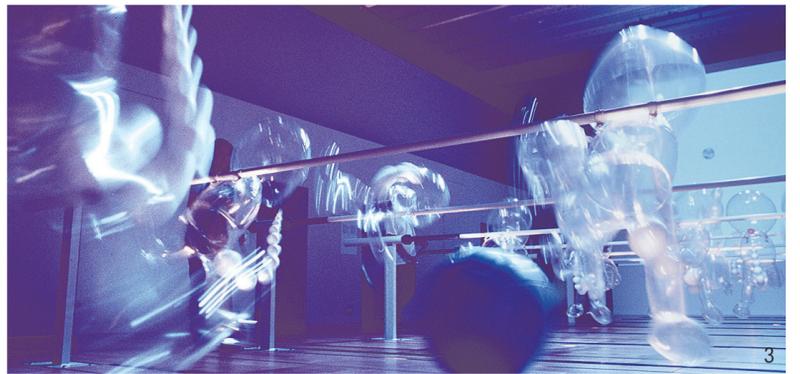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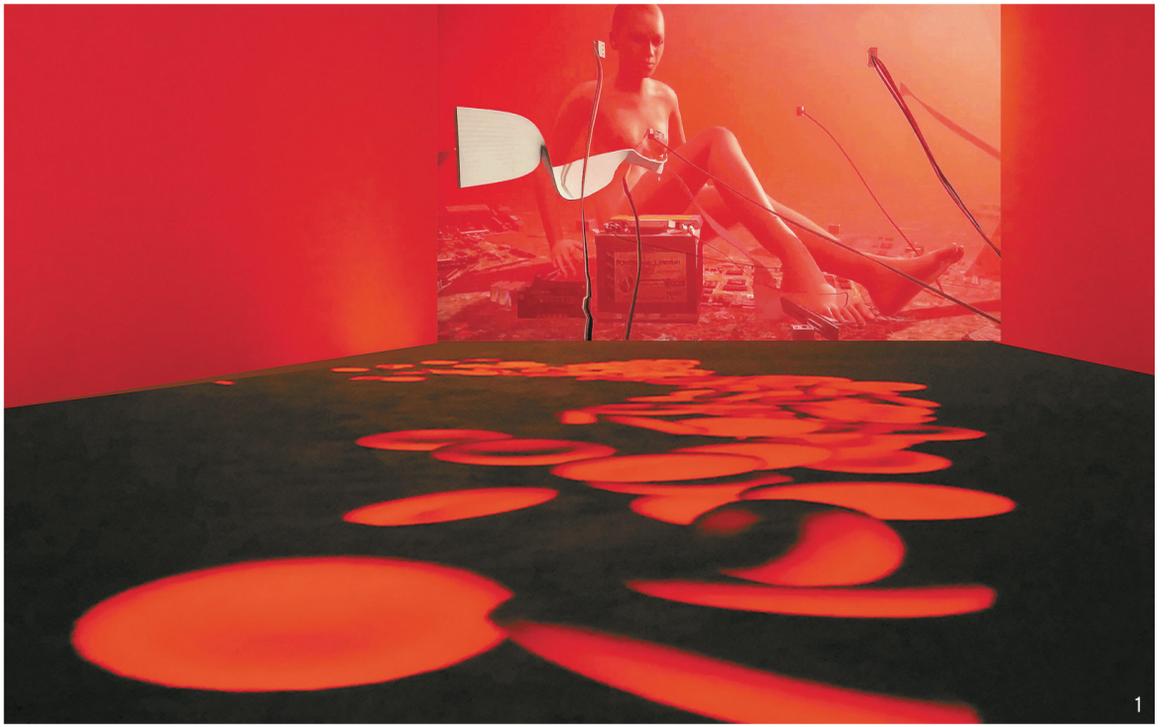
1990년대에 이미 인터넷 작품 활동 VR 등 활용 사회문제 정면으로 다뤄 다양한 성역할 조명 '브랜든' 대표작

또한 '뉴스 제작/역사 만들기: 천안문 광장에서'의 라이브(1990)에서 작가는 시위대와 군인들을 인터뷰해서 그것을 국영방송인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의 공식 보도와 나란히 배치해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기도 했다. 그리고 1980년대 말-90년대 초 보수화된 미국의 문화에 대해 1994년에 초현실적인 가족 이야기를 통해 동성애자 권리, 환경주의, 정부 개입 문제를 다룬 장편영화 '프레시 킬'을 제작하기도 했다. 이 영화가 베를린 영화제와 뉴욕 휘트니비엔날레에서 상영되면서 그는 본격적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슈리칭의 선구적인 작품 중 대표적인 것이 구겐하임 미술관이 의뢰했고 소장한 작품 '브랜든'(1998-1999)이다. 이 작품은 1993년 미국 네브래스카에서 젊은 트랜스젠더 남성 브랜든 티나가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성폭행과 살해를 당한 비극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작품은 인터넷의 참여적 특성을 활용해서 네티즌들이 실시간 채팅방에서 범죄와 처벌을 주제로 토론하게 하는 한편, 브랜든의 삶과 죽음을 조명하고, 우리 모두가 가상 환경에서 어떻게 다양한 성 역할과 캐릭터를 가질 수 있는지 보여준다. "이 작품은 현대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터넷 예술 운동의 분수령으로 종종 언급된다"고 구겐하임 전 큐레이터 케이틀린 존슨은 말했다.

슈리칭 "작품 세계 큰 자신감 얻었다" 소감

슈리칭은 이후에도 실험을 멈추지 않았다. 또 다른 장편영화 'I.K.U'(2000)는 "공상과학 포르노"라고 불리는데, 테크놀로지 시대의 신체와 성, 유동적인 성 정체성 등을 탐구한다. 그 속편으로 구성된 'UKI, 바이러스 창궐'(2018)은 2채널 영상작품인데 2018년 광주비엔날레에서 선보인 바 있다. 그는 또한 2019년 베니스비엔날레 대만관에서 대형 멀티미디어 설치미술 '3 x 3 x 6'을 선보였다. 이는 6대의 카메라가 끊임없이 모니터링 하는 3m x 3m 너비 '감옥'을 은유하는 제목으로서, 소셜미디어와 CCTV 등 디지털 사회에서 항상 감시하고 감시당하는 현대인을 다루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1 대만계 미국 작가 슈리칭의 비디오 설치 작품 'UKI 바이러스 창궐'(2018). 2 지난 2일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LG 구겐하임 어워드를 수상한 뒤 트로피를 들고 있는 슈리칭 작가. 3 슈리칭의 넷 설치 작품 '베이비 플레이'(2001).

슈리칭의 작품은 구겐하임 외에도 뉴욕 현대미술관(MoMA), 뉴욕 휘트니 미술관 등 주요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한국에서는 울산시립미술관에 'UKI, 바이러스 창궐'이 소장되어 있다. 슈리칭은 수상 소감으로 "예술과 기술의 만남을

지원하는 'LG 구겐하임 어워드'는 현대미술계에 매우 큰 의미"라며 "이 명예로운 상을 받아 앞으로의 작품 세계를 펼쳐 나가는데 큰 자신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나오미 벡워스 구겐하임 수석 큐레이터는 "LG와 함께 슈리칭의 활동을 후원하는데 큰

기쁨을 느낀다"고 했다. 5월에는 슈리칭이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관객과 직접 만나 자신의 작품 세계를 소개하는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창경궁 춘당지 거닐고 고종 취미 엿보고 ... 고궁서 놀아보세

문소영 기자

오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서울의 5대 고궁인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경희궁과 종묘 일대는 축제의 장으로 변모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한국문화재단과 함께 '2024 봄 궁중문화축전'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궁중문화축전'은 고궁이 갖는 공간적 아우라를 활용해 다채로운 전통문화 콘텐츠를 펼쳐서 국내외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받아왔다. 지난해의 경우 봄-가을을 2회에 걸친 축전에 총 67만5000여 명이 방문했다.

이번 축전의 경우, 궁을 찾은 관람객이 별도의 예

27일부터 서울서 '봄 궁중문화축전'

10주년 맞이 궁중 직업체험 등 다채 대금·가야금 연주자 100명 공연도

약 없이 볼 수 있는 상설 프로그램이 많아졌고, 글로벌 예약 시스템이 도입된 동시에 주요 프로그램에 외국인 대상 회차를 별도로 마련한 것이 특징이라고 궁능유적본부는 밝혔다.

경복궁에서는 세종 시대를 배경으로 전통복식을 입고 다양한 궁중 일상을 체험해 보는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 '시간여행, 세종'(5월 1일-5일)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와 함께 왕족이 경회루·황원정 등을 산책하는 모습을 재현한 '왕가의 산책' 등을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봄 축전에서 전화차 매진을 기록한 '고궁뮤지컬-세종, 1446'(4월 28일-30일)과 100명의 대금·가야금·해금 연주자가 모여 전통 국악을 연주하는 '고궁음악회-100인의 치세지음(治世之音)'(5월 4일-5일)이 근정전에서 열린다.

창덕궁에서는 궁중문화축전 최초의 전통공예 전시인 '공생: 시공간의 중첩'이 축전 기간 내내 열린다. 한지장·단정장 등 무형유산 5종목의 작품을 포함하여 총 24점을 선보인다.

또한, '궁궐 걷는 법'의 저자 이수우 작가의 해설과 함께 창덕궁 곳곳을 아침에 산책하는 '아침 궁을 깨우다'(4월 29일-5월 3일) 프로그램도 새롭게 선

보인다.

창경궁에서는 '어린이 궁중문화축전(5월 1일-5일)'이 개최된다. 속수(궁중 요리사)·의관·화원·역관(통역사)·취타대 등 조선시대의 다양한 직업들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야간 탐방 프로그램인 '창경궁 불빛연화'(4월 27일-5월 5일) 프로그램이 첫 선을 보인다.

덕수궁에서는 '황실취미회'가 축전 기간 내내 정관헌에서 열리는데, 가배(커피)·옥돌(당구)·음악 등 고종이 사랑한 취미 생활을 예약 없이 체험할 수 있다.

'고궁뮤지컬' '고궁음악회' '시간여행 세종' '아침 궁을 깨우다' 등 사전 예약이 필요한 유료 프로그램은 지난 5일부터 티켓링크(www.ticketlink.



2023년 궁중문화축전 개막제의 한 장면. '2024 봄 궁중문화축전' 개막제는 4월 26일 열린다.

〔사진 문화재청〕

co.kr)에서 티켓이 선착순으로 판매되고 있다. '어린이 궁중문화축전'과 26일 저녁의 '궁중문화축전 개막제'는 무료이나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